

 <p>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p>	<h1>보도자료</h1> <p>(2019. 08. 29. 목)</p>	 <p>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p>
	<p>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0</p>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공동연구·협력 추진
- 국회미래연구원, 통계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進)은 2019년 8월 2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기적인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양 기관이 공감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수 지표통계 생산 수준에서 행복(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 전체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급진적 변화,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등이 유발하는 양극화로 행복의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행복 불평등의 추이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미래연구 전문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통계 전문연구기관인 통계개발원과 협력하여,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도구 개발 ▲ 전국 규모(가칭)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 실시 방안 설계 ▲ 그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 학술대회’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인의 행복 측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매년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가 실시되면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

및 영향요인 관련 정보에 기반하여 ▲ 국회의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일반 국민과 관련 분야 연구자가 한국인의 행복 실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집행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계개발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한국인의 행복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행복은 국가운영의 궁극적 목표로, 국회미래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통계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계개발원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실태조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채정

(02-2224-9809, chaelee@nafi.re.kr)

<참 고>

